

# 정읍시 상시 선별진료소 새롭게 구축

### 역학조사·검체·X-ray실 갖춰 자동 음압 제어시스템 안전 확보 코로나 등 감염병 신속 적극 대응

정읍시가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구축했다. 시는 그동안 음압 텐트와 컨테이너 등 간이 형태의 열악한 환경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지만 폭염과 강풍 등 외부환경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검사 과정에서 의료진과 피검자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시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과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건소 후관 1층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했다. 총 116㎡ 규모로 역학조사실과 검체실(3실), X-ray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환기 시스템과 냉난방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검사자와 의료진 공간 분리와 함께 검사자 공간에는 음압, 의료진 공간에는 양압을 넣어주는 자



정읍시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과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건소 후관 1층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구축했다. <정읍시 제공>

동 음압 제어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 QR코드와 URL 주소를 활용한 전자문진표 작성, 키오스크(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단말기)를 통한 순번 대기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선별진료소는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면 무료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진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순창군, 신산업 성장분야 '메타버스팀' 신설

### 군정 전반 연계사업 발굴·추진

순창군이 메타버스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메타버스팀(TF)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메타버스(TF)팀은 최근 신산업 성장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순창군에 접목방안을 만들어 각종 정부 예산 확보 및 군정 전반에 대한 연계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군은 메타버스 분야의 선점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334개의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실·국과별 단위사업으로 분류해 추진 실현 방안을 검토해 계획했다. 군은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 일원에 다양한 AR, VR,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도입해 상상이 실현되는 미래기술 사회로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또 기업,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편성해 메타버스 산업 분야와 접단 IT기술 분야에 종합



왼쪽부터 권기용 메타버스팀장, 오근수 기획예산실장, 서장은 메타버스팀 주무관.

계획 수립·세부시행까지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군은 메타버스 도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군정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메타버스 산업분야가 세상을 바꿀 신성장 분야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문화, 관광, 산업, 교육,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접목해 미래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용 전 등급까지 확대 최대 3000만원 무담보 대출

남원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에 집중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내 8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담보 대신 특례보증을 통해 기존 4등급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던 것을 신용 전(전) 등급까지 확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억원까지 확대해 특례보증액(출연금의 10배)을 2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 대출이자 또한 3년 동안 2%를 보전하고 사정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특례 금융지원 사업을 전개해 503명의 소상공인에게 95억 2600만원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 해오던 것을 전 등급으로까지 확대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서해안철도건설 고창군 군민추진단이 고창 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서해안 철도건설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고창군, 서해안철도건설 범군민 서명운동

### 군민추진단 국가계획 반영 촉구

새만금에서 전북 고창을 거쳐 전남 목포까지 이어지는 서해안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고창군민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서해안철도건설 군민추진단(고창)'은 고창 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서해안 철도건설 국가철도망 계획반영'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서해안철도건설 군민추진단은 지난 12일 서명운동에 "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포함돼 있던 서해안 철도사업이 2차 계획부터는 제외돼 왔다"며 "더이상 서해안권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며 서해안 철도건설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서해안철도는 서해안의 물류, 교통 SOC 기반을 구축해 환경해권 시대와 앞으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철도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이다'라며 "서해안철도가 건설되면 새만금 국제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률을 높여 국가 기반시설간 상승작용을 극대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등 관련 지자체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로 국제물류 중심지역로의 부상'을 촉구하며 최소 6만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해안철도건설 군민추진단은 오는 제20대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익산시, 축산농가 ICT 융복합 시설 지원

### 개소 당 15억원 이내 총 3회까지

익산시가 축산농가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축산농가에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통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축산분야 ICT사업은 축사 온·습도, 환기상태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해 가축 생육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개체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 대외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양돈, 양계, 젖소·한우 등 모든 축종을 지원한다. FTA 이행 기금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금리2%, 3년거치 7년상환)가 지원되고 자부담이 20%이다. 신청 조건은 양돈, 한우, 젖소, 양계 등 전 축종 농업경영체로서 ICT 융복합 시설 적용 가능한 현

대화된 시설이 갖춰진 농장이어야 한다. 또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된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축종별 사업비는 개소 당 15억원 이내로 총 3회에 걸쳐 4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화 시설을 이용하면 생장정보, 개체별 건강 상태, 축사 환경정보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료량과 노동력을 줄여 효과적으로 가축을 돌볼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돼지, 젖소·한우 분야 자동급이기, 내·부환경관리기, 약취 측정장치, 로봇 착유기·자동 포유기 등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ICT 융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해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영민 기자 yjy@kwangju.co.kr

# 군산시 말랭이마을 관광 핫플레이스 부상

###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 완료

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말랭이마을'이 근대문화도시 군산시의 새로운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말랭이마을 조성사업은 신항동 일원 1만㎡에 전시관 8동, 레지던스 9동, 서비스공간 8동으로 지난 2015년에 시작해 2021년 완공됐다. 투입 사업비는 총 72억원으로 2014년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7년 조성공사를 착공, 2020년 건축물을 준공하고 지난해 김수미길, 소리공간, 전시체험시설 타점합의 및 잔

여공사 추진,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체 사업을 준공했다. 앞으로 레지던스 작가가 7개소 13명이 입주 중에 있으며 오는 2월 초 전시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시설물 보강 및 레지던스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마을 장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방 시 일본식 가옥 출구를 말랭이마을 어귀마당으로 변경해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 월명산 전망대까지 완공되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합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